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변인의 경로모형 연구

김교정* · 서상현**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 변인과 심리적 특성변인, 가정, 학교의 환경적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요인으로 인정된 변인들 사이의 경로적 관계를 고찰하여 학교사회사업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현장에서 기울여야 할 관심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 보고자 했다. 연구대상자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중에서 총화표집을 통하여 6개 고등학교와 6개 중학교 1800명이었으며, 남학생 852명, 여학생 866명으로 구성된 총 171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의미한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예측 모형을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유의미한 과정은 선행 변인중 심리적 특성 변인인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환경변인과 이용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주제어 : 인터넷 중독성향,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후반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유발시켰다. 특히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 주는 매력은 매우 커서, 정보의 검색이나 교환 외에도 컴퓨터 게임, 채팅, 동호회 활동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청소년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할 만하다 (Anderson, Bikson & Mitchell, 1995; King & Kraemer, 1995).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가정,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압박감을 분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다. 현실세계에 억압과 좌절이 많은 만큼 가상공간은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욕구 표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김미현, 2004; 김선우; 곽보람, 2004).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정보사회에서 그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회 환경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그 부정적 측면 때문이다. 청소년시기에는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혼란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그들의 사회 심리적 혹은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자기통제력 상실, 감정조절 능력 감소,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등의 증상을 보이기 쉽고 원조교제, 모방성범죄, 폭력, 살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황진구, 1999;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안석, 2000). 그러한 부정적 현상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나친 몰입을 의미하는 인터넷 중독성향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게임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김홍천, 2003; 성윤숙, 2003; 왕지선, 2004). 한국 사회조사연구소의 2004년 4/4분기 전국 각지의 초·중·고생 2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중독 직전인 속칭 ‘인터넷 폐인’의 상태에 있는 학생이 30%에 달하여, 초·중·고생 10명중 3

명은 정상적인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문화일보, 2005).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에서 실행한 ‘2004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주 이용 목적이 게임인 것으로 재확인 되었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성향 문제가 결코 가볍이 다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말해준다. 특히 인터넷 사용률 세계 1위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조차 없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중독성향에 관한 학계 및 언론, 방송 등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청소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 환경적인 요소가 인터넷 중독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하여 탐색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개인 변인이나 가정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과 인터넷 사용환경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해 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을 인터넷 중독 성향으로 이끄는 원인에 대한 경로탐색은 시도되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적 맥락 내에서 여러요인이 반영되는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미비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 상황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의 원인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유기체로서의 개인적 변인이외에도, 선행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정·학교 환경 변인들을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사회적 환경중 가정은 청소년의 제 1차적 환경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Gardner, 1992; 김경화, 2002; 정진태, 2003). 오늘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가족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가족의 심리환경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조영란, 2003; 조춘범, 2004; 김병선, 정은희 2004; 윤종민 2005).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 연구에 적용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개념화시키거나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양육태도를 분류하였는데, 어떠한 분류방법을 사용하는지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부모-자녀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에 S. Freud가 정신분석학을 발전시키면서부터였고 그 후 A. Freud가 자기 아버지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체계화하였다. Schaefer(1959)는 The Berkeley Growth Study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까지의 약 30여 년 동안 정기적으로 연구하여 양육태도의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가설적 모형은 양육태도를 2개의 양극적인 차원 즉 애정-거부(love-hostility)의 차원과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차원으로 대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Schaefer(1959)의 가설적 모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홍성권, 2005: 18). 이런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성향에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원만하고 사회성이 조장될 수 있는 태도는 청소년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사이버세계에서의 교류에 집착하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시형 외, 2000; 안석, 2000; 박정은, 2001; 김정동 외, 2000; 이계원, 2000; 윤지영, 2001).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일컫는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은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이며 이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류미라, 2002; 박선수, 2003; 김병석, 정은희, 2004). 청소년들의 2차적 환경집단은 가정환경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서 소극적이고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학생에게 더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혜경, 2002). 또한 또래의 지지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들(이혜경, 2002; 조준범, 2001)을 살펴보면, 또래와 관계가 좋을 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은 반면, 인터넷 중독집단은 또래의 지지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학교환경과

인터넷 중독성향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와, 수업시간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한복희, 2001; 김종원등, 2002; 박성길등, 2003).

인터넷과 사용의 편리성과 접근성 역시 인터넷 중독성향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있다(류진아, 2005; 임진숙, 2005).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터넷을 집과 그 외 장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용성의 의미이다.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인터넷 사용이 편리성과 접근성에 대한 개념으로 집, 학교, PC방, 그 외장소 등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의 접근성이 높을때 오랜시간을 쉽게 인터넷에 소요하고 더욱 많은 시간동안 인터넷을 해야 만족하게 되는 중독현상이 생길수 있다. 인터넷의 가용성은 편리성과 접근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임진숙, 2005; 남윤주, 2003; 조영란, 2003).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 심리적인 특성변인을 들고 있다. 인터넷에 보다 더 중독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견해 (Griffiths, 1996) 및 개인의 성격요인이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Browne, Johnson & Pratarelli, 1999)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기통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영, 2001; 이명수 외 2001; 김선우, 2001; 조용진, 2002; 김유정, 200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를 견뎌내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한다. 또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당면하는 일에 대처하며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 능동적, 창의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특징에 대해 상당히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가지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관심 있는 대우와 존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이계원, 2001). 인터넷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신체적 정보가 배제된 채로 이루어지고 또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기에 이들에게 인터넷은 매력적인 것을 넘어서 중독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즉 실생활에서 대인관계에 부적응적인 사람의 경우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대인관계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상의 대인관계에서 더욱 멀어져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그 예로 Young(1999)은 그의 책 「Caught net」에서 인터넷 중독자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종범, 1999).

자기통제력이란 자신이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충동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인터넷 중독성향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김종원 & 조옥귀, 2001)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았다. 이는 더 큰 만족을 위해 욕구를 지연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인터넷에 중독되기 쉬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선태(2001)의 연구에서 자기통제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성향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인터넷 중독성향치료를 위해서는 자기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8)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 대인관계 지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자는 유의미하게 자기통제력이 약했고, 점점 사용량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 부적응, 감정조절 능력 감소, 대인 관계 장애를 보였다. 이외에도 이선경(2001)은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자기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았다. 송원영(199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이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성향에 빠지기 쉬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환경인 가정과 학교의 환경 특성 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요인들 사이의 관계가 학교 사회사업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현장에서 기울여야 할 관심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볼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시도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중독을 병리적인 내용이라고 보다 부정적인 인터넷 사용정도를 의미하는 용어인 인터넷

중독성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이지항, 2005).

지금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영향요인연구는 대부분 심리환경적인요인들 각각의 파편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성립 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Selman등은(1992) 문제행동의 예방과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발달적 모형으로 두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등의 위험요소들의 직접적인 영향성, 둘째는 심리적 환경적 구성성분의 매개 작용에 의해서 위험행동이 발달한다고 보았다(Selman, Schultz, Nakkula, Watts, & Richmond, 1992).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교우관계, 가족관계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와 환경요소가 위험행동 즉 인터넷 중독성향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즉 위험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신념, 동기등이 중재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이 실제 위험행동에 몰입할 수도 그렇지 않고 예방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Selman 등의 모형을 토대로 위험행동인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의 관계에서 그 위험행동에 대한 개입여부를 결정할 때 그 행동에 대하여 갖는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 동기라고 볼 수 있는 심리적인 특성이 매개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Levitt & Selman, 1996).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가정, 학교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독성향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주관적으로 지각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전달되는것은 인터넷에 더 중독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견해 및 개인의 성격요인이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권재환, 2005; 김정애, 2005; 김종원, 조옥귀, 2002; 송원영, 1999; 이선경, 2001; 이계원,2001).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는 발달적 모형으로서 심리적특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심리·환경변인들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정과 학교, 인터넷 사용환경 특성과 인터넷 게임중독성향의 관계에서 심리적 특성변인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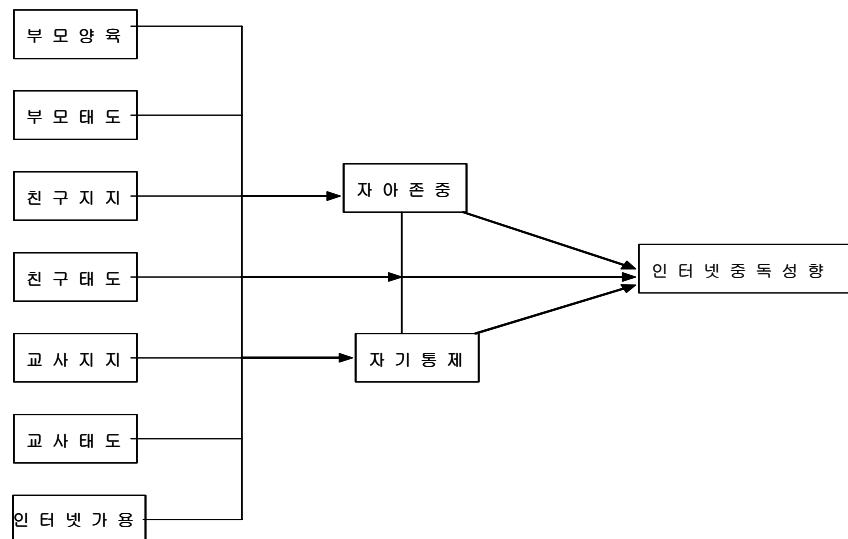
3.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가정과 학교의 환경특성 요인들을 선행변인으로 하고 심리적특성변인을 매개변인을 하여 한 연구의 개념적인 틀로서 인터넷중독성향 예측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변인으로서 가정과 학교의 특성을 선정하였고 매개변인으로서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즉각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위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arratt & Patton, 1983).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인수록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특성은 긍정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적응을 하게 되고 이런 정서적인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을 통해 위험행동의 요소의 예방차원으로서 필요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Egeland, Carson, & Sruof, 1993).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청소년이다. 층화표본으로는 부산소재 중, 고등학교를 층화표본 추출 하여 남자 고등학교 2곳, 여자 고등학교 2곳, 남자 중학교 2곳, 여자 중학교 2곳, 남녀공학 고등학교 2곳 남녀공학 중학교 2곳에서 1학년과 2학년을 각각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총 1800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82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852명, 여학생 866명으로 구성된 총 171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06년 3월 5일의 사전조사와 2006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본조사로 구분된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응답자가 자기-기입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본조사의 실행은 표집에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본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수정된 측정도구는 선행조사 후 몇 가지 문제점을 시정 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대하여 전문가 타당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1) 개인변인

개인변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특성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변인은 성별, 학교, 학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질문 등을 포함하며, 심리적특성변인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통제력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로젠버그(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한다. 각 문항의 반응범주는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6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8번 문항이 질문이 애매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 문항으로 작성하고 3, 5, 9, 10번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였다. 권재환(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며, 본 연구에서는 .79이다.

(2)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평정 척도를 참고로 남현미(1999)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장기만족 추구형과 관련된 문항 10문항, 즉각만족 추구형의 10문항으로 구성된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류진아(2005)의 연구에서 .70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의미의 항목은 역점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고, 신뢰도는 .754이다.

2) 가정환경 변인구성 척도

(1) 부모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도구는 이승국(1998)이 제작한 척도를 최효순(2001)이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도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방임과 통제 2가지 유형으로 측정하며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문항의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다(4)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의

미를 나타내는 역점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인 것으로 점수가 낮을 수록 거부적, 통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류진아(2005)의 연구의 계수(Cronbach's α)는 .872였고 본 연구에서는 .832로 조사되었다.

(2)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척도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춘범(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 7개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전문가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이에 4번과 6번의 내용중복성이 지적되어 6번 문항을 삭제한 후 사용하였다. 문항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0점)'을 부여 하였다. 30점을 최대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부정적이며,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류진아(2005)의 연구의 계수(Cronbach's α)는 .57였고 본 연구에서는 .68로 조사되었다.

3) 학교변인 척도

(1) 친구와 교사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종원과 조옥귀(2002)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수정과정에서 전문가타당도를 수립하였다. 친구와 관련된 문항 5문항, 교사의 태도 각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인터넷 사용에 대한 친구, 교사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김종원과 조옥귀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4로 나타났다.

(2) 친구와 교사 지지 척도

Dubow와 Ullman(1989)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이명화(1998)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또래의 지지, 교사의 지지 각 5개 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가족의 지지를 포함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측정도구인 부모의 양육태

도 척도와 전문가들의 내용 검증결과 수렴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가족지지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개발당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5로 상당히 신뢰 있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으로 나타났다.

4) 인터넷 가용성 척도

인터넷과 사용과 관련문항으로는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터넷을 집과 그 외 장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구성하였다. 가용성에 대한 문항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인터넷 사용이 편리성과 접근성에 대한 개념으로 집, 학교, PC방, 그 외장소 모두 4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류진아(2005)의 연구에서는 집에 대한 가용성만을 물었으나, 전문가타당도 수렴과정에서 재구성하였다. 각각의 장소에서 편리성의 정도를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다.(5점)'에서 '매우 사용이 어렵다(1점)' 등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최대점수는 20점으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61로 나타났다.

5) 인터넷 중독 성향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은정 등(2003)이 Young(1998)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기초로 수정 제작한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의 증세가 심한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드물게 그렇다(2점), 가끔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이다. Young(1998)이 제작한 기준에 따르면, 20에서49점은 '평균 이용자'이며, 50에서79점일 경우 인터넷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는 '중독 위험군'이고, 80점 이상이 '중독군'이다. 청소년 1,105명을 대상으로 한 이지향(2005)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후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로 나타난 9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본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4였다.

3. 분 석

본 연구는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Windows용 통계 프로그램 SPSS WIN과 공분산 구조분석 프로그램인 Amo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터넷 중독,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심리적 특성의 전반적 개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용하는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척도의 새로운 하위차원 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후,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인터넷 중독성향,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의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셋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설명과 예측 모형 연구를 위한 가장 과정적으로 적합한 모형 검색을 위한 공분산구조분석에 의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자료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중, 고등학교 소속과 학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의 수는 1718명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852명(49.68%), 여학생이 866명(50.4%)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 학년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이 가장 많은 321명(37.75%)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2학년이 307명(35.4%), 고등학교 1학년 299명(34.5%), 중학교 1학년이 276명(32.5%), 14세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 273명(53.5%), 중학교 2학년 253명(29.8%)로 각 소속 학년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남	852	49.6
	여	866	50.4
	계	1718	100
중학생	1	276	32.5
	2	253	29.8
	3	321	37.7
고등학생	1	299	34.5
	2	307	35.4
	3	262	32.1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연구대상자의 연구변인별 기술통계의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연구변인으로 설정된 독립변수를 각각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 학교변인, 인터넷 변인 각각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개인변인의 결과는 첫째, 5점 척도인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인 3.07은 ‘약간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사이에 속한다. 약한 긍정의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5점 척도인 자기통제력의 평균점수인 2.51은 ‘그저 그렇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사이에 속한다. 약한 부정의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환경변인으로서는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자율과 통제의 중간 수준(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5점 척도로 평균 1.98로 나타나 부모들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구지지와 태도 변인에 대한 평균값은 3.06(SD=0.45), 4.03(SD=0.81)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의 지지는 보통수준으로 인터넷에 대한 친구들의 태도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사의 지지인 경우 평균 1.87(SD=0.52), 교사태도의 경우 2.54(SD=0.64)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살펴보면 인터넷에 대한 친구태도는 부모태도와 교사태도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지지의 경우 평균값(1.87)로 나타나 부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못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와 비교 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N=1,718)

연구변인	측정 문항	평정	평 균	표준편차	점 수 범 위	
					원점수	측정점수
자아존중감	10	5	3.07	0.91	10-50	50
자기통제력	20	5	2.51	0.81	20-100	25-90
부모양육태도	18	4	2.02	0.29	18-72	20-69
부모태도	6	5	1.98	0.64	5-30	15-23
친구지지	5	5	3.06	0.45	5-25	5-25
친구태도	5	5	4.03	0.81	5-25	18-25
교사지지	5	5	1.87	0.52	5-25	5-21
교사태도	5	5	2.54	0.64	5-25	5-19
인터넷가용성	4	5	3.17	0.92	5-20	7-20
인터넷중독성향	19	5	3.81	0.76	19-90	30-90

본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점수 분포를 <표 3>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인터넷 중독 점수의 평균은 3.81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76이었다. 다른 연구변인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성향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별 분포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일반적으로 비중독으로 분류되는 20이상 49이하가 603명(35.1%)이다. 앞에서 평균적인 온라인 이용자로써, 온라인 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이다. 중독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50이상 79미만은 938명(54.6%)인데, 이 경우는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음직한 이용자로서,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사람들이다. 심각한 중독으로 볼 수 있는 80이상은 177명(10.3%)로 나타났다는데, 이들은 인터넷 때문에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수준의 사람들이다.

이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성향을 조사하였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점차적으로 비중독의 경우에서 중독적 성향, 그리고 심각한 중독성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증가추세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5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둔 2000년의 중, 고등학교 인터넷 중독성향 선행연구들(강민아, 2000; 안석, 2000; 이주연, 2000; 황수정, 2000)의 평균 분포율과 비교해 보면 보다 비중독 성향은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하나의 측정치를 가지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한계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수준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미 인터넷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많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소년 문제 중의 하나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3> 인터넷 중독성향 점수대 별 분포

(N=1,718)

변 수	구 분	빈 도 (명)	백분율 (%)
인터넷 중독성향	20이상~49이하	603	35.1
	50이상~79이하	938	54.6
	80이상	177	10.3
	계	1718	100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 경로분석

1) 적합도 지표

본 연구의 경로모형은 9개의 하위척도(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부모양육, 부모태도, 친구지지, 친구태도, 교사지지, 교사태도, 인터넷가용성)로 구성되었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관성 검증을 실행하였다. 이에 .70이상인 변인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10개의 척도는 독립변인으로서 경로모형을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모형을 상정하였다. 비교모형 1)은 개인 심리적 특성변인과 가

정, 학교, 인터넷가용성 등의 9개의 독립변인이 직접적으로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비교모형 2)는 가정, 학교, 인터넷 가용성 변인 등의 환경 변인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인을 매개로 인터넷 중독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비교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를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모형1은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검증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에서 부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GFI와 AGFI 값에서는 적합도 기준 0.9(Brown & Cudeck, 1993)를 벗어난다. 하지만 기타의 모든 지표에서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므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형2에 비해 적합도 수준이 떨어지므로 불완전한 모형이라 볼 수 있다. 심리적 특성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인 모형 2는 카이제곱검증값이 자유도에 따른 카이검증 기준값 보다 크게 나타나 연구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함을 인정 할 수 있다. AGFI, GFI는 0.9이상이고, RMSEA의 경우 0에 가까우므로 모든 적합도 지표를 충족시키는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 각 모형의 적합도 지표

(N=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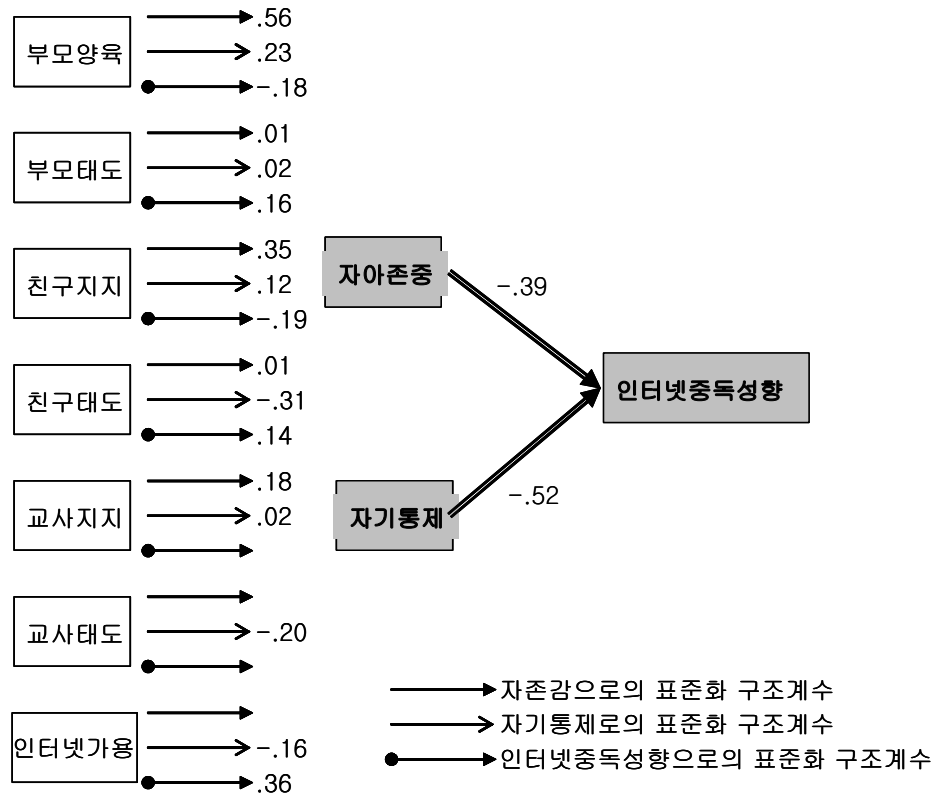
모 형	카이제곱 검증		AGFI	GFI	AIC	RMSEA	적합성
	카이제곱	자유도					
1	53,241	46	.715	.771	845	0.094	불완전
2	23,148	32	.929	.969	.563	0.042	적합

주 1) GFI=Goodness-of-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주 2) *: $p<0.05$ **: $p<0.01$ ***: $p<0.001$

2) 구조경로

다음 [그림 2]에서 청소년 인터넷중독성향의 구조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구조계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23개의 경로중 13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인들간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에서 설정한 각 내생변인들이 다중상관지수는 자아존중감이 .41, 자기통제력이 .50 인터넷중독성향이 .3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외생변인보다 내생변인들이 인터넷중독성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표 5>에 최종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 예측모형의 구조경로

(N=1718)

내생변수 /외생변수	비표준화된 추정치(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	고정지수	다중상관지수 (SMC)
자아존중감				.41
부모양육태도	-.53(.04)	-.56	14.32***	
친구지지	.31(.04)	.35	6.21**	
교사지지	.13(.03)	.18	1.89*	
자기통제력				.50
친구태도	-.28(.03)	-.31	-5.12**	
인터넷가용성	-.14(.03)	-.16	-1.56*	
부모양육태도	.20(.04)	.23	3.24**	
교사태도	-.18(.03)	-.20	-2.14**	
친구지지	.10(.04)	.12	1.24*	
인터넷중독성향				.37
자기통제력	-.50(.03)	-.52	-10.46***	
자아존중감	-.37(.04)	-.39	-7.86**	
인터넷가용성	.32(.03)	.36	6.84**	
친구태도	.11(.03)	.14	1.38**	
친구지지	-.17(.03)	-.19	-1.99**	
부모양육태도	-.15(.04)	-.18	-1.89**	
부모태도	.14(.03)	.16	1.56*	

* $p<0.05$ ** $p<0.01$ *** $p<0.001$

(1) 외생변인들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최종모형의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개인 심리적 특성변인인 자아존중감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양육태도($\beta=-.56$, $P<0.001$)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성향인 청소년들일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친구지지($\beta=.35$, $P<0.01$)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를 통하여 얻은 충족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역시 높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 의견 등에 대한 친구의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지지($\beta=.18$, $P<0.05$)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친구를 제외하고 교사에서 얻어지는 충족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역시 높다는 것이다.

(2) 외생변인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최종모형의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개인 심리적 특성변인인 자기통제력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beta=-.31$, $P<0.01$)는 자기통제력 변인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의 인터넷에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친구나 또래집단은 비슷한 가치관, 배경, 관심을 공유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인터넷에 대한 태도를 갖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인터넷가용성($\beta=-.16$, $P<0.05$)은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가용성이 편리할수록 자기통제력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인터넷 자체의 오락성, 흥미 유발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은 감소한다.

셋째, 부모양육태도($\beta=.23$, $P<0.01$)는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 자신의 통제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지나친 통제나, 방임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비사회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의 감독 및 통제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자기통제력에 대하여 교사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beta=-.20$, $P<0.01$)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인정되었다. 이것은 교사가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친구지지($\beta=.12$, $P<0.05$)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인정되었다. 이것은

친구지지가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외생변인들과 인터넷 중독성향의 관계

첫째, 인터넷 가용성($\beta = .36, P < 0.01$)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것은 인터넷 가용성이 좋을 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이다.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의 접근성이 높을때 오랜 시간을 쉽게 인터넷에 소요하고 더욱 많은 시간동안 인터넷을 해야 만족하게 되는 중독현상이 생길수 있다.

둘째, 친구태도($\beta = .14, P < 0.01$)가 인터넷 중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친구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타인과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친구와의 대화 역시 직접적인 만남과 함께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셋째, 친구의 지지($\beta = -.19, P < 0.01$)는 인터넷 중독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가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와 지지망이 좋을 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낮은 반면 인터넷 중독성향을 가진 집단은 또래의 지지를 덜 받고 있다는(백미영, 2002; 조준범, 2001)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인터넷 중독성향에 부모양육태도($\beta = -.18,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중독성향이 심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어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되며, 인터넷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인터넷에 대한 부모의 태도($\beta = .16, P < 0.05$)가 부정적이고 통제가 높으면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개입에서 허용과 통제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변인중에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자아존중감·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성향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beta = -.52, P < 0.001$)과 자아존중감($\beta = -.39$

$P<0.01$) 변수가 인터넷 중독성향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 일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더 약해짐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외생변수들과 인터넷중독성향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Goodman(I) 검증을 시도하였다. 결과 일방검증의 임계값인 1.65보다 작은 인터넷 가용성($Z=1.47$)과 부모태도($Z=.96$)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양육태도($Z=-2.03$) 친구지지($Z=-1.85$), 친구태도($Z=-1.91$), 교사지지($Z=1.88$), 교사태도($Z=1.76$)변수에서는 인터넷중독성향간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 성향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성향 치료를 위해 자기통제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어야 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변인들을 종합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유의미한 변인들중 심리적 특성을 매개변인으로 인터넷 중독성향에 빠지게 되는지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자료에 비해 중독의 위험군의 수가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특별히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그 동안의 이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온 결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청소년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둘째, 각 변인들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고 적합성 지표의 결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발달과 촉진적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환경 변수가 매개변수인 개인적 심리적 특성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거쳐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변수로서의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가정환경중 부모의양육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며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며 자기통제력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박정은, 2001; 손승희 2001; Baruch & Barnett, 1981). 이는 지나친 통제나, 방임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상호작용과정을 비사회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의 감독 및 통제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심리적인 특성을 통하여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중독성향이 심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어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되며, 인터넷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경향이 있다는 여러 연구들과 일치한다(김지형, 2002; 이계원, 2001; 조춘범, 2001; 권재환, 2005).

인터넷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통제가 높으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감소하고 자기통제력 역시 감소시켜 인터넷 중독성향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부모의 개입에서 허용과 통제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 균형은 인터넷 사용지도에 대해서 두 축이 된다(이숙영, 임은미, 2002). 부모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청소년들을 더욱 중독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이지향(2005)의 연구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

둘째, 학교환경중 친구를 통하여 얻은 충족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역시 높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 의견 등에 대한 친구의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애, 2005; 권재환, 2005; 이지향 2005). 이는 청소년기의 친구나 또래집단은 비슷한 가치관, 배경, 관심을 공유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인터넷에 대한 태도를 갖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타인과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친구

와의 대화 역시 직접적인 만남과 함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전대양, 2001). 또한 또래집단의 발전을 통해 자아감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 집단에서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종원, 조옥귀, 2002). 친구관계에서 인터넷 비중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 뿐만 아니라 중독성향에 영향을 준다는 윤영민(2000)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또래집단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된다.

친구 이외에 학교환경 변인중 교사의 지지와 교사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교사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교사가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진숙(2005)와 다수의 선행 논문들의 결과와 일치한다(남윤주, 2003; 조영란, 2003).

2.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의 예방과 개입 그리고 치료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는 가정에서 벗어나 친구나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사회적 동조행동이 증가하며 친구들로부터 얻는 지원과 이해 및 안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친구의 지지와 태도는 개인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친구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학교사회사업은 또래상담이나 방과 후 집단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일상생활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교사의 책무에 관한 교내 자체 보수 교육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둘째,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적절히 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방임이나 과도한 통제 역시 문제라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균형은 인터넷 사용지도에 대해서 두 축이 된다(이숙영, 임

은미, 2002). 부모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청소년들을 더욱 중독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이지향(2005)의 연구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상반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조준범(2001), 정경아(2001), 김청택(2002) 등의 선행연구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수록 인터넷 중독성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진영희(2002) 정정숙, 권정혜(2003)등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처럼 부모의 태도가 부정적일 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모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감독은 청소년의 주위환경의 위협적인 요소에 대한 완충적인 역할을 하여 인터넷 중독성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부정적일 경우 자녀의 위험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Peter & Rollins).

인터넷 중독성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전략들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인터넷 중독의 예방이나 해소에 부모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사회사업이나 관련 전문기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긍정적으로 돕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중독성향에 개인 심리적 특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에 인터넷 중독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사회사업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현장에서 기울여야 할 실천적 관심을 청소년의 인접환경과 더불어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가정과 학교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비롯된 것임을 규명하였다. 이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현상에 대한 다요인적 접근과 예방과 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 환경변인 측면으로 인터넷 가용성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직접

적으로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가용성이 가족의 통제나 공유없이 높은 경우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자신과 부모와 교사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용에 대한 물리적 인터넷 환경 역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 성향에 대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매개변인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복수 수정모형 등에 대한 비교연구가 실행되지 못한 점과 좀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현상의 설명을 위하여 개인적 심리특성을 매개로 하는, 가정, 학교의 환경, 그리고 인터넷가용성 변인 등에 대한 과정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성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이들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중독성향을 보이는 집단에 속한 샘플의 수로 인하여, 집단별 분석이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위험집단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향의 연구모형 검증은 보다 차별적인 연구가 되리라 판단하고 추후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민아(2000).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심각성.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6회 워크숍.
- 기세정(2003).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 서울, 경기도 남자 중·고등학교,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보람(2004).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안양시 소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숙(2004).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문제행동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범(2000).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2000). 인터넷 중독증. 서울 : 나눔의 집.
- _____(2000). 청소년 인터넷 중독 :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차 정책 포럼논문집
- 노형진(2003).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 형설출판사.
- 류진아(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영미(2002). 인터넷 중독학생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미화(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 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희경(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실태 및 대책 : 청주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2001). 부모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연(2000). 일반 청소년과 통신중독 경향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환경 요인과의 관계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지환(200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정(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희(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해연(200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과 성격특성 변인연구 : 자기효능감, 자기통제감, 공격성,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복희(2001).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정보문화센터(2002). 2002년 6월 대비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형태 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정보문화센터.
-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서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0). 청소년의 PC중독 한국.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수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권(2005). 인문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기대수준, 자기통제력,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진구(1999).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Anderson, R. H. and Mitchell, B. M.(Ed.).(1995). *Universal access to e-mail: Feasibility and societal implication*.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Amstrong, L., Philips, J. G., and Sailing, L. L.(2000). Potential determinant of heavier internet usag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53, 537~550.
- Azar, S. T. Rohrbeck, C. A. and Wagner, P. E.(1991). Child-control rating Scale: Validation of child self 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0(2), 179~183.
- Barnes, G. M. and Farrell, M. P.(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Bost, J And SCHERER, K.(1997). Internet use patterns: Is there internet dependency on campus?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Bronfenbrenner, U.(1976).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vard University Press.
- Browne, B. L., Johnson, K., and Pratarelli, M. E(1999). The bits and bytes of Computer/Internet addiction: A factor Analytic approach. *Behaviou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 31(2), 305~314.
- Dubow, E. F. and Ullman, D.(1989).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The survey of adolescent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52~64.
- Griffiths, M. D.(1996). Internet addiction: *Clinical Psychology Forum*, 97, 32~36.
- King, J. L., and Kraemer, K. L.(1995). Information infrastructure, national policy,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olicy*, 4, 5~28.
- Suler, J.(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Rider univ. copyright. Aug. <http://www.rider.edu/~suler/psycyber/cybaddict.htm>(검색일: 2006년 2월 12일)
- Selman, R. L., & Demorest, A. P.(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c: Implications of ane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 288~304.

- Selman, R. L., Schultz, L. N., Nakkula, M., Barr, D., Watts, c., & Richmond, J. (1992). Friendship and fighting: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study of risk and prevention of violence.
- Turow, J.(1999). The internet and the family: The view from parents, the view from press. *The Annenberg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Report Series No. 27.*
- Young, K. S.(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ing strategic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 INC.

ABSTRACT

The Research on a Path-model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the Internet Addiction

Kim, Gyo-Jeung* · Suh, Sang-Hyun*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twofold,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 to analyze path on them. Then, It seeks to find out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for adolescent welfare settings including school social work.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middle-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area. The respondents are sampled by a stratification method from middle · high schools, and sample size is 1718 Which is consist of male 852, female 852.

In order to verify Path-model among significant variables, path analysis is performed with a statistical package, Amos 5. The more significant path is that the higher are the self-esteem and self-control, and the lower is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e environmental variables being mediated by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Key Word :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path-model,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environmental variables

투고일 : 4월 20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20일

* Tongmyong University

